

이주의 본당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날 위령 미사

1월 19일(일) - 연미사 미리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 1월 20일(월) - 2월 7일(금): 한국 방문 및 휴가
- 1월 26일(일) 주일 미사 집전 :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이튼타운 한인 성당 주임)
- 2월 2일(일) 주일 미사 집전 : 김기현 모이세 신부(프린스턴 한인 성당 주임)

● 2019 교무금 완납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수희, 김광대, 김성문, 김성욱, 김성철, 김영두, 김영복, 김연자, 김재숙, 박민수, 박영희, 송헌배, 신용철, 안우풍, 오세환, 윤모니카, 이경실, 이순덕, 임익철, 장석영, 최만섭, 최미라, 최영숙, 황선동>

● 송년의 밤 결산

제2회 자선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입 : \$4,428.00

지출 : \$2,633.95

총 수익금 : \$1,794.05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월 19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나>

모두함께! 구역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 1) 마틸다 구역 : 1월 7일(화) 오후 7시에 박영희 마틸다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2) 글로리아 구역 : 1월 18일(토) 오후 7시에 장한민 엘리사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장한민 엘리사벳 자매님, 김영복 아스나타시아 자매님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487번 동방의 세박사 (1,2절)
제1독서	이사야서 60, 1-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소서 3, 2. 3ㄴ. 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오 2, 1-12
봉헌성가	182번 신묘하온 이 영적
성체성가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퇴장성가	487번 동방의 세박사 (3,4절)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주님 공현 대축일 1월 5일	주님 세례 축일 1월 12일	연중 제2주일 1월 19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황선동, 황태영	김경훈, 이문경	송현배, 송현숙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반가운 일일 테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그다지 흥미로운 일이 아닐 테지요.

동방 박사의 등장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이들 안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유다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은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 이 말은 당시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로데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유다인들의 임금은 헤로데여야 하였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데에게 그들이 예로부터 기다린 메시아 신앙을 짚어 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참된 통치자가 나와야 한다는 신앙 고백은 헤로데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예수님의 등장은 마냥 좋은 것만도,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지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명예를 중시하는 계층일수록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입니다. 지금 이대로그가 편하니까요.

반면에 돈이 없고 힘이 없어 내세울 자랑거리 하나 없는 계층은 늘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세상,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 서로의 ‘다름’을 운명처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것에 눈이 멀어 다른 이의 처지를 읽어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다양한 세상’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참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현은 결국 ‘내’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12월 29일(일)>			
봉헌금	\$380.00		
교무금	\$120.00	최영숙(10-12)	
Total	\$500.00		
<1월 1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봉헌금	\$497.00		
교무금	\$40.00	권수희(11,12)	
감사헌금	\$140.00		
		김형주(\$20), 이정지(\$20), 문혜숙(\$1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95.00		
Total	\$772.00		